

피해자 권리 존중을 위한 관련 단체 연락처

아래 관련 단체는 각 단체별 고유 설립 목적에 따라 운영됩니다(단체명을 검색하여 홈페이지 활동 내용 참조). 따라서 각 단체의 상황과 인력에 따라 지원 가능한 부분에 한계가 있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상담 및 문의를 하시면 최대한 도움이 되고자 모두 노력할 것입니다. 각 단체 연락처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연락처가 바뀌어 통화되지 않을 경우, 4·16재단(031-405-0416)이나 생명안전 시민넷(010-4328-7722 박순철 활동가)에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 단체 단체명 · 연락처(담당) · 상담 가능 분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031-482-0416(사무처)	피해자 모임 구성, 연대와 정부-언론 대응 관련 자문 및 지원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010-9375-1337(허영주 공동대표)	피해자 연대 및 피해자 대처 방법 자문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각 단체들의 네트워크 방식으로 운영)	(사)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 연락처 참조	산업재해 피해자 연대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	010-8599-5441(전재영 활동가)	피해자 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시민사회 단체 및 피해자 단체의 네트워크 방식으로 운영)	02-723-5302(사무국: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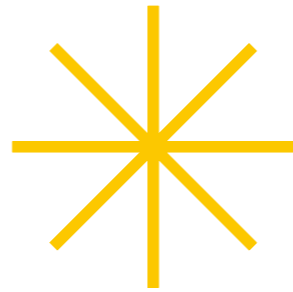
2. 노동 안전 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사)김용균재단	02-3496-5067, 010-4322-2259 (조승규 상임활동가·노무사) 02-833-1210, 010-3365-9404(권미정 활동가)	반도체 산업재해 산업재해(피해자와 그 가족의 대응 방안 마련 및 연대 포함)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	1833-8261(대표전화)	방송 미디어 노동자의 노동권, 안전 및 산업재해
한국노동안전 보건연구소	02-324-8633(사무처)	노동자 건강, 직업병, 산업재해
일과건강	02-490-2091(사무실)	화학물질 피해, 노동자 건강
노동건강연대	02-469-3976(사무실)	노동자 건강, 산업재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02-2637-1656(사무실)	비정규직 건강권, 노동안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02-2670-9100(대표전화)	노동자 건강 및 안전, 산업재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02-497-7888(대표전화)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부문 노동자 등의 건강 및 안전, 산업재해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모든 이들 앞에 있다. 재난과 참사가 이미 특별한 일이 아닌 사회에서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재난과 참사를 해석하는 시선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작업을 통해 재난과 참사가 무엇이며 피해자는 누구인지 정의해 보여 한다. 피해자의 권리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누가 피해자인지, 그들의 권리는 무엇인지 정리했다. 또한 이런 관점에서 언론의 보도 준칙,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서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시하려 한다.

재난은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예상하기 힘들고 피해자와 가족 등 주변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다. 하지만 국가와 사회는 이런 재난 피해자를 보호할 방안을 충분히 마련해 놓지 못했고, 재난의 피해와 고통에 맞서는 것은 피해자들의 몫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꼼꼼히 정리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제시한 이 『피해자 권리 매뉴얼』 발간의 의미는 크다.
—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재난이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연대하여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며, 그래서 모두가 재난의 진실, 정의, 안전, 회복, 기억을 위해 참여하고 요구할 권리이자 의무를 가짐을 조목조목 짚는다. 피해자 중심 원칙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조력자,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구성원 등 재난 상황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인, 국가, 시민이 짊어질 역할을 상세히 알려 주는 소중한 지침서다.
— 김지혜(『선량한 차별주의자』 저자)



피해자 권리 매뉴얼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자 권리 매뉴얼

4·16재단

- 김수영(변호사)
- 김연경(몽골 미디어인권연구소 소장)
-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노란리본인권모임(인권운동사랑방)
- 박성현(4·16재단 나눔사업1팀장)
- 박순철(생명안전 시민넷 활동가)
- 박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4·16재단 위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생명 · 안전 · 약속
4·16재단

재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전합니다

처음 겪기에 정신을 차리기 어렵고 경황없는 시간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해결할 문제가 쌓여 있는 불안한 시간을 버텨 내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유가족 분들의 선택이고 판단입니다. 다만 재난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존중받으며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아주 짧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재난에 따른 사망 사고는 여러분 가족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실수나 부주의가 원인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든 정부, 관련 기관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기관들의 잘못입니다. 재난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같이 책임져야 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2. 유가족들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받아서 상황을 가장 잘 알 권리가 있고, 의견을 말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고 조사 과정에 대해 가족들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브리핑을 들어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밝혀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합니다. 누구보다 진실을 규명하고 싶어 하는 주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의 의견을 모아 기자회견을 하는 등 사회를 향해 이야기하십시오. 일부 정치인이 아니라, 유가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시민들이 많습니다.

3.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존중받으며 돈 때문이라고 의심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문적 영역이라 모르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판단하고 조언을 듣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재난 참사에서는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 알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과 조언을 해드릴 사람들과 전문가들이 있으니 조력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배·보상 문제는 유가족의 권리입니다.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사고 책임자는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내놓으며, 배상과 보상이라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4. 유가족을 대신하지는 못하지만, 유가족들의 행동에 함께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싶고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찾아보고 싶을 것입니다. 왜 이처럼 예견된 사고가 반복되는지 억울하고 분노스럽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유가족들의 요구를 계속 이야기하며 행동하고 싶을 것입니다. 유가족들의 그런 마음과 행동에 함께할 사람들이 손을 잡아 드릴 것입니다. 언론에서 사라지면 잊힐까 두려운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잊지 않고 함께하려는 이들이 있고 그들이 함께할 때 사회의 관심과 언론의 관심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재난이 나에게 닥치기 전까지 우리는 누구도 그것이 내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누구에게나 이런 아픔은 생길 수 있고, 이는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이번 일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은 유가족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가 요구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3. 환경 보건 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사무실)	석면, 가습기 살균제(생활 화학제품), 대기오염(미세 먼지, 라돈), 전자파 등 환경 보건
----------	------------------	--

4. 법률 단체

대한변호사협회	02-2087-7732(생명존중재난안전 특별위원회 인권팀)	법률 지원
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pipc@minbyun.or.kr, 02-522-7283(공익인권변론센터)	법률 상담

5. 언론 단체

미디어인권연구소 몽클	mungclelab@gmail.com, 010-2203-4731(김언경 소장)	피해자 언론 보도 문제
-------------	---	--------------

6. 인권 단체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사무실)	피해자 인권 상담
인권운동사랑방	02-365-5363(노란리본인권모임)	피해자 인권 상담, 피해자 지원 단체 연계

7. 시민사회 단체

4·16연대	02-2285-0416(사무처)	세월호 참사 피해
정치하는엄마들	act@politicalmamas.kr, 010-2540-0420(사무국)	어린이 생활 안전
생명안전 시민넷	safetyrights@gmail.com, 010-4328-7722 (박순철 활동가)	피해자 지원 단체 연계

8. 재단법인

4·16재단	031-405-0416(사무처)	재난 참사 피해자 지원 단체 연계, 재난 긴급 지원 사업 시행
--------	-------------------	------------------------------------